

# 제주 농축수산물 홍보·판로 개척 '요람'

### 지난달 28-31일 부산 벡스코서 '특산물 박람회' 개최 제주개발공사 등 도내 5개 업체 참가 제품 전시·홍보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우수 농축수산물·특산물의 홍보·판로 개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라일보, 강원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일보, 중도일보, 전북도민일보는 지난 28-31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를 개최했다. (주)한국전선산업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188개 업체가 참가, 모두 227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이들 부스에서는 각 시·도에서 엄선된 대표 특산물과 우수 농축수산물 등이 전시됐다.

제주에서는 제주개발공사 등 5개 업체가 참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관에는 ▷하효삼물협동조합 ▷제주라미네 ▷제주오가닉스 ▷오라향농업회사법인(주) 등 4개 업체가 입점, 1차 특산물과 가공품을 전시·

홍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현장에서 시식·체험코너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홍보관을 운영하며 우수한 제주의 물맛을 알렸다. 또 수거한 투명 페트병을 화학반응으로 분해해 회수한 원료로 만든 페트(PET)를 선보이며 청정 제주자연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행사는 지자체 홍보관, 지역특산물관, 전통식품 주제관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이 곳에서는 전국의 우수한 특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홈리빙, 중소기업 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소개하는 부스와 체험행사 코너도 마련·운영됐다. 또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바이어 상담회가 진행됐다. 이날에만 모두 28건의 상담



지난달 28-31일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열렸다.

이 진행됐다. 각 지역에서 참가한 업체들도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수산물과 특산물을 전시·홍보했다. 일부 업체들은 현장에서 즉석 시식코너 등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했다. 개막식 당일부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주말·휴일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 각 지역 농축수산물과 특산물을 맛보고 즐기고 구매했다. 행사가 열린 28-31

일 나흘간 3만2900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지난해 보다 갑절 가까이 늘었다.

한국전선산업원 관계자는 "제11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는 2025년에도 다양한 콘텐츠와 알찬 구성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현영총기자 vijhyeon@ihalla.com

## 서귀포in정 '수산물 기획전'

### 오는 17일까지 다양한 이벤트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이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아 1일부터 수산물 특별 기획전을 벌이고 있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 기간에는 품목별 10% 할인 이벤트, 무료 배송,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 커피 교환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SNS를 통해 구매 고객 대상 최고 레시피를 선정해 사은품을 주는 '요리왕 이벤트', 서귀포in정 상품으로 구성된 '빙고 이벤트' 등도 있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갈치, 옥돔, 굴비, 뽕소라, 문어, 어묵, 젓갈 등 수산물 전 품목이다.

서귀포in정에서는 수산물 특별 기획전과 더불어 4월 봄맛이 기획전도 펼친다. 카라향 출하 시기에 맞춘 카라향 기획전을 오는 8-25일



나들이하기 좋은 날 1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하안말등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화창한 봄 날씨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운영하고 4월 봄나들이 체험 상품 기획전 등도 이어진다.

서귀포시는 "4월 서귀포in정 소비 촉진 기획전이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즌별로 다양한 기획전을 추진해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in정은

올 들어서만 2월 말 기준 매출액이 33억 원에 이른다. 2021년 1월 15일 개시 후 누적 매출액은 200억 원이 넘는다.

전선희기자

## 제주에너지공사 작년 매출액 크게 줄었다

### 전기생산량 줄고 전력거래가격 낮아 22.8% 급감 영업비 가중·부채 상환 등 자산총액도 75억 감소

제주에너지공사가 지난해 평균 풍속 감소와 노후 발전기의 가동 중지로 매출액에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생산량 하락에 전력거래가격(SMP)마저 낮아지며 경영상 악재로 작용했다.

1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184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5700만원(-22.8%) 줄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공인인증서(REC) 수익과 기타 매출액은 이 기간에 각각 18억1600만원, 1억7400만원 늘어 대조를 보였다.

전력판매수익은 전년도 217억4400만원에 견줘 74억4700만원(34.2%) 감소한 142억97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에 비해 평균 풍속이 감소했고, 노후 발전기의 가동 중지 등에 따른 발전량 하락이 매출액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력거래가격도 킬로와트시(kWh)당 252.2원에서 지난해 176.9원으로 30%가량 내렸다.

실제 평균 풍속은 전년보다 5.0% 줄었고, 노후 발전기 가동 중지

이용률 2.3%p, 발전량 15.3% 각각 감소했다. 발전기 가동률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90.8%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158억9300만원 소요되며 전년 대비 17억7400만원(12.7%) 늘어 경영 부담을 키웠다.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25억5200만원이다.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매출원가는 116억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2800만원(8.7%) 증가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도 42억2900만원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4억4600만원(25.0%) 늘었다. 임금 인상을 비롯해 교육여비·훈련비, 발전설비 수선비, 각종 연구용역비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9억6000만원에 그치며 지난해 63억3100만원에 견줘 53억7100만원(-84.8%) 감소했다.

자산총액은 지난해 1577억원으로 매출액 하락과 부채 상환 등으로 전년 대비 75억원 줄었다. 백규탁기자

## 제주관광산업 디지털전환 스케일업 지원

### 제주도·JTP 산업 연계 미래형 일자리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고, 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한다.

도와 제주테크노파크(JTP)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혁신 프로젝트 '관광산업 DX 스케일업 미래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소재 관광업과 스마트관광 분야의 IT 기업, 항공·모빌리티 유관기업이다. 미래유망기술을 적용한 관광산업 분야 지역특화 모델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지능형 관광 서비스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미

디아트 등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기타 관광과 ICT 혁신기술, 항공·모빌리티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사업 등이다. 과제별로 1-3곳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유망기업을 발굴해 8개 과제를 선별해 15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전문분야의 디지털노마드, 크리에이터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후속사업과 홍보마케팅 등을 추가 지원하며 신규 고용한 직원의 역량강화와 직무안정을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도는 유망기업 발굴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高氏宗門會總本部 創立70週年

# 第20回 耽羅國宗廟大祭典

檀君 三韓 시대로부터 조선태종조까지 수천년의 脈을 이어온 耽羅國 개국시조 高乙那 聖王을 비롯한 역대왕과 星主님들의 위업을 기리는 耽羅國宗廟大祭를 아래와 같이 봉향합니다.

전국 6개 지파에서 헌관으로 참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2024년 4월 9일(화) 11:00 / 장소: 탐라원 종묘 (제주시 연북로 560)

입재: 2024. 4. 8. 16:00 (정기총회 포함)

헌 관		
왕위전	성주전	
초 헌관	高成鎔 (고씨울산총회 고문)	高烜錫 (고씨광주·전남총회총회장 이사장)
아 헌관	高英鳳 (고씨충무회총본부 부회장)	高秀東 (고씨충무회총본부 부회장)
중 헌관	高炳勳 (고씨광주·전남총회 부회장)	高制憲 (고씨제주도연합청년회 회장)
전 사관	高東禧 (고씨충무회총본부 상임부회장)	

재) 탐라총묘문화재단 이사장 高正彦  
고씨충무회총본부 회장

지방보조금 지원행사

· 보조사업명: 탐라국종묘대제

· 보조사업자: (재)탐라총묘문화재단

